

아담 스미드의 經濟學

成 昌 煥*

〈目 次〉	
I. 아담 스미드의 生涯, 時代, 人間 및 業績	3. 資本論
II. 『國富論』의 主要內容 및 思想	4. 經濟政策論
1. 分業論	III. 『道德感情論』과 『國富論』의 關係
2. 交換論	IV. 『國富論』의 學說史的 意義와 그 影響

I. 아담 스미드의 生涯, 時代, 人間 및 業績

아담 스미드(Adam Smith)는 1723年 스코틀랜드의 小都邑에서 탄생하여 홀 어머니 밑에서 養育되었다. 그는 1737年 14歲에 글라스고우大學에 入學하여 哲學者 허치슨(Francis Hutcheson)의 배움을 받았다. 1740年에서 46年에 이르는 동안 給費生으로서 옥스포드大學의 벨리얼 칼리지에서 數學과 自然科學을, 뒤이어 文化科學 특히 市民社會史등을 研究하였다. 그 후 歸鄉하여 에딘버러大學의 講師로서 經濟學을 강의하였으며, 1751년에는 母校 글라스고우大學의 論理學教授로 초빙되어 道德哲學講座를 담당하였다. 1759年 『道德感情論』[3]을 刊行하였으며 그 후 經濟學에 깊은 興味를 느껴 研究에 몰두하였다.

18世紀 中葉의 英國은 바로 産業革命期로서 工場制手工業에서 機械制生産으로 옮겨가는 過渡期였다. 農業에서는 18世紀 初頃부터 엔크로우저運動이 進행되었으며, 한편 國內商業의 발달, 市場의 확대와 더불어 巨大한 富와 販路를 가져다 준 外國貿易과 植民地의 확장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對內的으로는 小手工業者의 勢力이 뿌리깊게 남아 있어 엘리자베트王朝 以來의 徒弟法 그 밖의 길드적 制限을 고집하고 있었으며, 對外的으로는 特權的 商人들이 重商主義的 保護制度를 고수함으로써 社會經濟의 進運을 가로막고 있었다. 아담 스미드의 時

* 高麗大學校 教授

代야 말로 바로 이러한 傳統的 束縛制限에서 自由解放을 갈망하는 英國 産業資本의 黎明期였던 것이다.

아담 스미드의 生涯와 學問에 큰 영향을 준 事件은 1763年末부터 약 3年間의 大陸旅行이었다. 그는 프랑스의 學問中心地 툴루즈(Toulouse)에 滯在하면서 그의 大著『國富論』의 初稿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重農學者들을 비롯한 그 當時의 學界文壇의 巨星들과 交遊함으로써 많은 영감을 얻었던 것 같다. 그가 1766年「歸國한 후『國富論』의 資料를 수집하고 歸鄉하여 6年間 杜門不出하고」오로지 大著의 完成에만 몰두한 것이다. 그 후 修正 加筆을 경유하여 드디어 1776年 3月 9日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라는 標題下에 그의 大著를 出版하였다[1]. 그는 1787年 글라스고우大學의 總長으로 選任되었으며, 平生 獨身으로서 90년에 에딘버러에서 永眠하였다. 그는 死後 未完稿를 모조리 燒却할 것을 依頼함으로써 그의 論著로서는 『道德感情論』, 『國富論』 및 약간의 小論文에 한정된 것이다.

II. 『國富論』의 主要內容 및 思想

스미드는 經濟學을 「諸國民의 富의 性質 및 그 原因」을 연구하는 學問이라고 하여 현저히 實踐的 政策的 性格을 띄게 된 것이다[1, Vol. II, p. 177]. 富를 획득하여 一國을 번영하게 하는 方法을 고찰하기 위한 前提로서 富의 性質을 밝히기 위하여 分業, 價格, 貨幣 내지 商業등을 論하며, 政府支出에 相當할 歲入의 적당한 方法등을 다룬 것이다[2, pp. 3-4; 4, 第2編 第3章 第3節, p. 120].

스미드는 國民의 富를 勞動의 年生産物로 보고 이것을 所得과 同一視한다. 따라서 그의 富는 定期的으로 流入하는 所得을 意味한다. 그는 富를 所得으로써만 보는 것이 아니고 財產으로서도 보았지만 그가 主로 問題삼은 것은 前者인데 이것은 國民生活上 重要的 것은 定期的으로 產出되는 富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年生産物을 所得과 同一視한 것은 正確하지 못하지만 아뭏든 그는 國民의 富를 勞動의 生産物로 이해함으로써 富의 源泉을 勞動이라고 理解한 것이다. 그가 「國富論」에서 「各國民의 年勞動은 그 國民이 每年 消費하는 一切의 生活必須品과 便宜品을 供給하는 資源이며, 이 必須品 및 便宜品은 그 勞動의 直接 生産物이든 또는 그 生産物으로써 他國民으로부터 購入한 物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은 바로 위의 事實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主張은 貨幣素材를 主要한 富로 보고 商業 내지 輸出工業을 富의 源泉으로 본 重商主義, 및 富의 源泉을 農業生産에만 限定하려 했던

重農主義와 對立됨을 宣明한 것이라 하겠다[4, pp. 122—123].

스미드는 分業이 確立됨에 따라 富를 自身の 勞動生産物이라기 보다도 그 勞動生産物이 支配하는 他人勞動量이라고 이해한 것이다[1, Vol. I, Bk. I, Ch.V]. 아무튼 스미드에 있어서는 富의 源泉이 勞動인 만큼 富의 增進은 勞動生産力의 改善發展에서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國富의 諸原因에 관한 研究는 勞動生産力 改善方法의 研究로 歸着되었다.

스미드는 勞動生産力 改善方法으로서 첫째로 勞動의 質의 狀態 즉 能率에 영향을 주는 가장 重要的 것을 分業으로 본 것이다[1, Vol. I, Bk. I, Ch. I, p. 5]. 分業은 市場의 擴張에 依存하며 商業社會의 發達は 貨幣의 使用을 촉진함으로써 價値 및 價格의 事實이 나타난다. 더욱 그는 모든 商品의 價格이 勞賃, 利潤, 地代의 세 部分으로 分解되며 또 이 세 部分이 商品價格의 構成部分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勞動生産力 增進方法으로서 그는 둘째로 國民중 有用한 勞動에 증사하는 人員數의 比率을 들고 있으며 이것을 높이는 것은 資本額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等額의 資本이라 할지라도 그 用途에 따라 使用할 수 있는 勞動者數를 달리하지만 人間의 利己心의 自然的 發動에 맡겨두면 資本도 스스로 一國經濟의 發展上 가장 적합한 用途에 投下된다는 것이다[1, Vol. II, Bk. IV, Ch. XI, pp. 172—176].

以上이 『國富論』 第1, 2編의 基礎의 理論部分이며, 第3編에서는 各國 經濟發達の 歷史의 考察을 記述하고 있다. 이곳에서 스미드는 一國經濟發展의 自然的 秩序를 설명하고 各國의 政策이 위의 秩序에 違背하여 農業보다도 商工業에 偏重했던 事情을 詳述하고 있다. 그는 第4編에서 自由放任政策이 實現되면 自然 制度가 확립되어 經濟學의 第一目的인 國民에 대한 充足한 生活資料의 提供이 달성된다고 力說한다. 그러나 위의 自由는 絶對的인 것이 아니며 政府는 그 職能으로서 國家의 獨立을 확보하기 위한 國防, 司法 및 公共施設의 建設 維持를 擔當해야 한다는 것이다[1, Vol. II, Bk. IV, Ch. IX, pp. 184—185]. 第5編에서는 後世의 財政學에 해당하는 이러한 問題를 다루고 있다[1, Vol. II, Bk. V, Ch. 11, pp. 310—312].

위에 說明한 것처럼 『國富論』에서는 理論의 歷史의 政策的 研究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體系가 鮮明치 못한 感이 없지 않다. 그러나 「國富 및 國力의 增進」[1, Vol. I, Bk. II, Ch. V, p. 351]이라는 政策的 目的에서 出發한 國民經濟의 理論의 歷史에 政策的 研究를 集大成한 것으로서 勞動의 生産力이 그것을 質적으로 左右하는 分業의 發展과 그것을 量的으로 규정하는 生産의 勞動者數가 결국 一國의 資本蓄積에 依存한다는 事實, 그리고 또 「資

本은 節約에 의하여 增加되며 浪費 및 失策에 의하여 減少한다」는 事實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있어 스미드는 節約을 찬양하고 浪費 및 失策을 탄핵함에 이른 것이다[1, Vol. I, Bk II, Ch. III, pp. 320—321].

더욱 스미드에 의하면 勞動生産力の 增進과 資本의 蓄積은 모든 사람들의 利己心에 기인되는 것이나, 이러한 利己心은 人間性情 그 自體에 기인하는 自然的인 것이며, 그것에 기인되는 資本의 蓄積과 分業의 發展도 無意識的 活動의 반복의 결과로서 自然的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人爲의 手段으로 이러한 利己心의 自由로운 發動을 방해하지 않는 한 分業 내지 資本蓄積은 스스로 달성되는 것이라고 한다[1, p. 324].

요컨대 스미드의 見解를 요약하면 國富의 增進은 勞動生産力の 改善으로 달성되며, 生産力の 改善은 결국 資本蓄積에 의존한다. 이러한 資本蓄積이 필요하지만 蓄積은 본시 人間の 自然的 性情인 個人的 利己心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自然的으로 달성된다. 오직 필요한 것은 그 自由로운 發動에 대한 人權的 障害을 除去하는 것 뿐이다[1, Vol. II, Bk. IV, Ch. K, p. 184]. 그의 自由放任政策의 根據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國富論』에 있어서의 스미드의 出發點은 利己心을 根本性情으로 하는 個人이며, 經濟社會는 이러한 個人들이 오로지 他人의 利己心에 호소함으로써 自己의 利己心을 만족시키는 分業 내지 交換에 의하여 서로 결합됨으로써 成立 存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社會의 利益은 이러한 個人들의 利己心의 自由로운 發動으로 달성된다. 이러한 自由가 保障된 狀態야말로 스미드가 經濟上 神的인 것, 自然的인 것, 理想的 狀態라고 한 것, 소위 「自然的 自由制度」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그에 있어 理神論的 世界觀에 입각한 抽象的 絶對的 制度이지만 그 當時 이러한 自由가 企業의 自由 내지 勞動의 自由로서 나타나는 한 거의 資本主義 社會制度和 一致한다. 따라서 抽象的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正義의 法을 侵犯하지 않는 한 自身의 利益을 추구할 수 있도록 自由로 放任되는」 것을 그 成立條件으로 하지만 具體的으로는 中世 封建的 내지 重商主義的 紐帶를 打破하여 탄생하고 있는 資本主義社會이다. 스미드가 이 社會의 탄생의 必然性을 인정하고 그 發展을 위한 自由放任政策을 주장하는 점에 있어 그의 學說은 變革的인 것이라고 해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社會를 自然的인 것이라고 하여 그 助成政策을 絶對化하려는 점에 있어서는 그의 學說이 保守的인 것으로 轉化될 契機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4, pp. 130—131].

以上 『國富論』의 構造의 輪廓을 敘述하였지만 이제부터 『國富論』의 主要部分에 대하여 說明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1. 分業論

스미드는 그의 研究를 分業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그가 分業을 勞動生産力 增進의 原因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重商主義와 重農主義에 反對하여 國富의 源泉을 모든 產業勞動에 歸一하고 勞動一般에 生産性を 인정한다. 靚 製造에 관한 그의 有名한 說明은 工場制手工業에 있어서의 技術의 分業을 다룬 것이지만[1, Vol. I, Bk. I, Ch. I, p. 5] 그에 있어서는 分業이 社會生産物의 창조에 있어 人間協同이 自然的으로 이루어지는 制度이며, 모든 사람들은 分業에 의하여 그들의 活動을 한 종류의 生産物의 製造에 한정하고 그것을 다른 것과 交換함으로써 自己自身과 社會의 欲求를 충족하는 동시에 生産力を 增進한다는 것이나 이에 있어 技術的 分業과 社會的 分業을 同一視하고 있다. 또 스미드는 重農主義者처럼 農業階級에만 生産性を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產業階級이 모두 國富의 成立에 기여한다고 본 것이다. 즉 農業만이 아니고 商工業도 生産의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國富의 源泉은 土地내지 自然이라기 보다는 勞動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더욱 그는 勞動의 生産性を 특히 資本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았던만큼 결국 資本의 生産성을 인정함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스미드는 重農主義者와는 달리 營利經濟의 特質을 지적하였지만 重農學派의 영향을 받아 그의 見解를 철저히 전개하지 못한 감이 있다. 그가 商工業에 있어서는 自然의 힘이 작용하지 않지만 農業에 있어서는 自然의 힘과 사람이 協力하기 때문에 後者에 있어서의 勞動이 前者의 그것보다도 生産의이며 農業에 있어 利潤 및 勞賃뿐만 아니고 地代가 발생하는 것은 自然의 힘의 生産物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이것은 그가 重農學派의 영향을 받은 證左이며 이 점 그의 見解를 一貫하지 못하고 있다[1, Vol. I, pp. 343-344].

그러나 아몽든 스미드에 있어서는 國富의 源泉이 勞動一般이며, 특히 分業은 勞動의 能率과 至大한 關係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1, Vol. I, p. 5].

2. 交換論—貨幣論·價值 및 價格論·分配論

貨幣論

스미드에 의하면 分業은 交換하려는 人間의 自然的 性向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性向은 分業에 의하여 實現됨으로써 交換은 더욱 발달한다[1, Vol. I, Bk. I, Ch. IV, p. 24]. 이처럼 分業과 交換에 의하여 成立存續하는 商品生産社會에서는 交換의 媒介手段을 使用하게 된다. 이러한 媒介手段으로 使用하는 商品이 차츰 다른 商品에서 獨立하여 드디어 一般的 商業要具로 된다[1, Vol. I, pp. 24-25, p. 30]. 이것이 바로 貨幣의 起源이다. 이것은 物品形態에서 金屬形態로 다음엔 鑄貨形態로 발전한다. 즉 그에 의하면 貨幣란 利己心에 입각하는 個人活動의 合成的 結果로서 自然的으로 발생한 것이며, 결코 國家에 의한 意識的 創造物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미드는 이처럼 貨幣의 本質을 一般的 商業要具 즉 流通手段이라고 인정함으로써 金銀을 富의 唯一한 形態로 보는 重商主義에 反對한 것이다[1, Vol. I, pp. 406—407]. 貨幣는 一般商品과 다를 바 없지만 다만 物物交換에 따르는 不便을 덜어주는 手段이다. 그러나 貨幣가 일단 流通手段이 되면 모든 商品은 貨幣와 훨씬 빈번하게 交換된다. 그 結果로서 모든 商品의 交換價値는 훨씬 빈번하게 貨幣에 의하여 計量된다[1, Vol. I, Bk. I, Ch. V, p. 34]. 그리고 價値尺度로서의 貨幣도 다른 商品처럼 價値變動의이다. 金銀도 다른 商品처럼 그 價値가 變動의이기 때문에 精確한 價値의 尺度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1, Vol. I, pp. 34—35]. 스미드는 貨幣를 一般商品과 구별하지 않았으며, 鑄造貨幣도 金屬의 量的品位가 證明된 地金이기 때문에 貨幣의 價値는 바로 金屬의 價値와 다를 바가 없다. 그가 紙幣에 대하여는 이것이 金屬貨幣와 다를 바가 없지만 더 값싸고 편리한 商業要具라는 것이다[1, Vol. I, Bk. II, Ch. II, p. 275]. 그리고 兌換紙幣인 경우 그 價値는 兌換할 수 있는 金銀貨幣의 價値에 의하여 決定되며, 不換紙幣인 경우에는 장래 兌換할 수 있는 期待에 달려 있다고 한다[1, Vol. I, p. 307].

價値 및 價格論

스미드는 商品과 貨幣를 本質上 同一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交換價値와 價格과의 區別은 消失된다. 그의 價値論의 目的이 絶對價値로서의 商品價値가 아니고 相對價値 내지 交換價値 즉 商品의 交換比率를 규정하는데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우선 使用價値와 交換價値를 구별하고 그의 有名한 價値의 二律背反論을 전개한 것이나 兩者의 關係를 깊이 고찰함이 없이 使用價値를 研究對象에서 除外하고 만 것이다[4, pp. 142—143].

스미드는 交換價値를 支配하는 法則을 밝히기 위하여 첫째 交換價値의 精確한 尺度 즉 眞實價格이 무엇인가, 둘째 이 眞實價格을 구성하는 諸要素가 무엇인가, 셋째 價格의 이들을 諸要素中 그 일부 또는 全部를 그 自然率보다도 높인다든지 떨어뜨리는 事情이 무엇인가를 고찰한 것이다. 그는 大體로 첫째 문제를 第1編 第5章에서, 둘째 문제를 第6章에서, 셋째 문제를 第7章에서 다루고 있다. 첫째의 문제가 그가 말한 「資本의 蓄積 내지 土地의 私有 以前의 社會狀態」 즉 單純商品生産社會 내지 前資本主義社會의 問題이며, 둘째 및 셋째의 문제가 資本主義社會의 問題이다.

스미드는 交換價値의 精確한 尺度를 勞動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勞動이란 두가지 意味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즉 첫째는 支配勞動量으로, 둘째는 投下勞動量으로 보았는데 前者는 商品의 所有者로 하여금 그것으로 購入 또는 支配할 수 있는 他人의 勞動量을, 後者는 商品의 生産에 所要된 勞動量을 意味한 것이다. 그가 「資本의 蓄積 및 土地의 私有 없는 社會狀

態下에서는 각종 商品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勞動量의 比率이 그 商品을 交換하는 경우의 유일한 基準이 된다[4, p. 147]고 말한 것을 보면 投下勞動量을 價値의 尺度로서 商品은 그것에 內包된 勞動量에 따라 交換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投下勞動量의 見解를 展開하면서 同時에 支配勞動量을 價値의 尺度로 삼고 있다. 요컨대 스미드는 前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投下勞動量과 支配勞動量을 번갈아 가면서 商品價値의 規制者로서 採用하여 兩者間에서 重要하고 있다.

그러나 投下勞動量과 支配勞動量을 同一한 水準에서 交替的으로 價値의 참다운 尺度로 使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본시 한 商品으로 一定한 勞動量을 支配한다는 것은 交換을 前提하여 또 交換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이미 그 以前 商品과 勞動量이 等質의 價値임이 既定事實로 되어야 하는데 이제 支配勞動量을 價値의 尺度로 삼는다는 것은 일종의 循環論法의 誤謬를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1, Vol. I, p. 33].

이처럼 스미드가 投下勞動量과 支配勞動量을 혼동한 것은 商品에 對象화된 勞動과 아직 對象化되지 않는 산 勞動을 혼동한 것에 기인되며 勞動價値說의 見地에서는 勞動의 生産物의 價値와 勞動의 價値 즉 勞賃을 同一視한 것에 기인된다[4, pp. 147—148].

스미드가 이처럼 價値論의 혼란을 가져온 原因을 고찰하건대 前資本主義社會에서는 勞動의 價値와 勞動의 生産物의 價値가 일치되며 支配勞動量과 投下勞動量이 數量的으로 일치한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4, pp. 148—149].

스미드는 또 勞動을 價値의 尺度로 보았던 만큼 勞動의 單位를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있어 그는 이미 문제의 困難을 인식하고 異質勞動의 比較問題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도 結論적으로는 異質勞動量間의 交換比率을 決定하는 것은 勞動時間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市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흥정을 통하여 조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느끼고 있었다[1, Vol. I, Bk. I, Ch. V, p. 33].

스미드는 異質勞動의 困難으로 말미암아 勞動單位를 決定하기 어렵기 때문에 價値尺度로서는 勞動量보다도 商品量 특히 貨幣가 가장 편리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1, Vol. I, pp. 33—34]. 그러나 스미드는 또 한편 勞動量을 價値의 참다운 尺度라고 주장하면서 「勞動이 야말로 그 自體의 價値가 변동하지 않는 것이며, 勞動만이 모든 時間과 場所를 가리지 않고 모든 商品의 價値를 평가하며 비교할 수 있는 마지막 참다운 標準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 Vol. I, p. 35].

이처럼 스미드는 勞動을 그 價値가 不變하기 때문에 價値의 참다운 尺度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말하는 勞動價値란 客觀的인 勞賃이 아님이 明白하며, 그 勞動者에 있어서의 安樂과

自由 및 幸福의 희생을 意味한다. 따라서 그의 勞動價値란 결국 一定勞動量의 그 勞動者에 대한 主觀的 苦痛度를 말하는 것인 만큼 客觀的인 價値의 尺度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4, p. 152].

아롱든 스미드는 勞動價値의 不變性이 論證된 것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貨幣이든 商品이든 等量의 勞動을 支配하는 한 價値尺度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1, Vol. I, Bk. I, Ch. V, pp. 38-39]. 이처럼 스미드는 모든 商品價値의 不變的 尺度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不變的 價値의 商品을 發見하려고 努力한 것이나 이것은 본시 不可能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어떠한 商品의 價値도 勞動의 生産力이 변동하면 그에 따라 그 價値도 변동한다는 勞動價値說로 미루어 보아도 위의 事情을 理解할 수 있다[4, p. 154].

앞서도 論及한 것처럼 스미드가 投下勞動量과 支配勞動量을 모두 價値의 尺度라고 본 誤謬에 대하여 前資本主義社會에서는 兩者가 量的으로 一致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資本主義社會에서는 兩者가 量的으로 一致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誤謬가 明白히 들어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資本主義社會에서는 산 勞動의 一定量이 그것이 商品에 對象化된 경우의 同一量을 支配할 수 없고 反對로 對象化된 勞動의 一定量이 商品에 投入된 것보다도 많은 산 勞動量을 支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投下勞動量과 支配勞動量은 이미 量的으로 一致하지 않는다[4, pp. 154-155].

이러한 만큼 스미드도 資本主義社會에서는 勞動의 生産物이 모조리 勞動者에 歸屬하지 않고 이것을 資本 및 土地의 所有者와 나누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1, Vol. I, Bk. I, Ch. V, Ch. VI, p. 51]. 즉 勞動에서 勞賃이, 資本에서 利潤이, 土地에서 地代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스미드는 資本主義社會에서 商品價値는 投下勞動量과 利潤 및 地代의 合計로 구성된다고 하여 投下勞動價値說을 포기한 것이다[1, Vol. I, p. 51]. 즉 商品의 價値는 그것이 支配하는 勞動量에 따라 決定되지만, 資本의 蓄積, 土地의 私有와 더불어 支配勞動量은 投下勞動量(같은 勞賃)과 利潤 및 地代의 合計와 같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스미드의 價値 및 價格論에 있어서는 支配勞動價値說—生産費價値說—構成價値說의 見解와 投下勞動價値說—剩餘價値說—分解價値說의 見解가 혼합된 느낌이 있다[4, p. 161].

다음 그의 첫째의 見解에 따르는 自然價格論을 고찰하여 보자.

스미드의 自然價格은 勞賃 利潤 및 地代의 세가지로 구성되는 商品價値를 말하지만 그는 이밖에 또 市場價格, 즉 商品이 販賣되는 現實價格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兩者의 關係

에 대하여 그는 市場價格에 「실제로 市場에 제공되는 商品의 供給과 그 自然價格을 支給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需要 즉 有效需要와의 比率에 따라 決定된다」고 설명한다[1, Vol. I, Bk. I, Ch. VII, p. 58]. 따라서 自然價格은 商品價格의 中心價格이며 市場價格은 언제나 自然價格으로 歸着하게 마련이다[1, Vol. I, pp. 59-60]. 물론 이때 市場價格이 自然價格으로 歸着하는 것은 自由競爭을, 즉 各產業間에 勞動 資本 및 土地의 移動이 自由로 이루어지는 것을 前提로 한다. 따라서 自然的인 것이든 政策的인 것이든 위의 前提가 缺如되면, 즉 한 商品의 供給이 獨占되면 그 商品의 市場價格은 自然價格보다도 높게 유지된다고 한다[1, Vol. I, p. 62].

分配論

위에 설명한 것처럼 스미드는 商品의 自然價格이 自然率에 따르는 勞賃 利潤 및 地代로 구성된다고 이해하였지만 그는 이들 세 要素의 自然率이 어떻게 決定되며 또 變動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分配論이다[1, Vol. I, Bk. I, Ch. X-XI].

스미드는 資本主義社會에 있어 社會의 富가 停滯의 狀態에 있는 경우에는 勞賃이 勞動者自身 및 그 家族의 最低率의 生活費에 귀착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勞動者와 雇傭主間의 契約에 있어 雇傭主의 단결이 용이한데 반하여 勞動者의 단결이 禁止되어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雇傭主는 勞動者보다도 一般的으로 有利한 地位를 차지하기 때문에 勞賃의 自然率은 보통 人道를 벗어나지 않을 만큼의 最低率로 落着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社會의 富가 增進의 또는 減退의 狀態인 경우에는 勞賃이 위의 自然率을 벗어나 그보다도 騰貴한다든지 또는 下落한다[1, Vol. I, Bk. I, Ch. X, pp. 70-75]. 이처럼 스미드는 勞動의 報酬가 풍족하나 또는 결핍하나 하는 것은 國家의 增進 또는 減退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았다[1, Vol. I, pp. 70-75]. 그러나 그 後 英國의 資本主義의 發展과 더불어 國家가 增進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勞動者의 生活狀態가 호전되지 못하여 貧民問題가 심각한 社會問題로 되어버린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또 스미드는 勞賃의 自然率이 勞動者의 生活必要費이며, 그 市場率은 勞動需要의 增減에 따라 그 上下로 변동하지만 勞動需要의 增減은 人口의 增減을 통하여 勞動供給의 增減을 가져옴으로써 결국 自然率로 歸着된다고 이해한 것이다[4, pp. 166-168].

다음 스미드는 利潤에 대하여 그 源泉을 勞動에서 求하고 投下勞動量으로 결정되는 商品價值에서 控除되는 部分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는 위의 見解를 관찰함이 없이 利潤을 勞賃 및 地代와 더불어 眞實價格의 構成部分이라고 주장한다[1, Vol. I, Bk. I, Ch. VII, p. 57]. 그는 또 利潤도 社會의 富의 盛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資

本의 增加는 勞賃을 騰貴시키지만 利潤의 減少를 가져오게 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부유한 商人의 資本이 同種事業에 投入되는 경우에는 相互競爭으로 말미암아 그 利潤을 減少케 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同一社會에 있어서의 各種事業 全體에 대하여도 資本增加가 이루어지면 역시 競爭으로 말미암아 事業全體에 같은 結果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하여 資本이 減退할 때에는 勞賃은 떨어지지만 利潤은 도리어 많아질 것이다[1, Vol. I, Bk. I, Ch. IX, p. 89].

다음 利潤의 自然率에 대하여 스미드는 勞動 및 資本의 移動이 自由로운 경우에 實現될 平均利潤率로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各種職業 全體의 平均利潤을 확인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대체로 資金의 利子에 의하여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1, Vol. I, pp. 89—90].

끝으로 스미드는 地代를 利潤에 대해서처럼 商品價値의 分解部分이라고 이해하는 동시에 그 構成部分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는 土地의 自然的 地代란 土地의 生産物에서 賃借人이 利子和 勞賃을 支給하고 農業用 家畜 및 그밖의 用具를 구입하고 또 그 維持費와 普通利潤을 加算한 合計額을 공제한 殘餘部分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1, Vol. I, Bk. I, Ch. VI, p. 51]. 이러한 地代가 土地의 使用에 대한 報酬로서 利潤 勞賃과 더불어 商品의 自然價格의 構成部分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가 다른 곳에서는 勞賃과 利潤만이 自然價格의 構成部分이고 地代의 存立如何는 商品價格이 위의 自然價格을 초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1, Vol. I, p. 147].

이처럼 스미드는 地代에 대하여 一見 모순되는 見解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가 不完全하나마 後年の 差額地代와 絶對地代에 관한 問題意識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一國의 土地가 모두 私有財産으로 될과 동시에 地主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自身이 破종하지 않은 土地에서도 收穫을 얻고자 하여 土地의 自然的 産物에 대해서 조차 地代를 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1, Vol. I, Bk. I, Ch. X, p. 145].

3. 資本論

스미드는 國富의 源泉인 勞動의 生産力을 左右하는 原因으로서 分業과 더불어 總國民중 生産的 勞動에 종사하는 比率를 문제삼은 것이다. 그런데 一國에서 生産的 勞動者數는 그 나라의 資本의 量과 그 用途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또 分業의 發展도 資本의 蓄積을 條件으로 한다. 따라서 스미드에 있어 國富의 源泉이 勞動에 있다는 것은 결국 資本에 依存한다는 것으로 歸結되며, 國富의 要因으로서 資本을 고찰하게 된 것이다.

스미드는 資本의 起源을 分業의 發展에서 求하고 있으며, 分業이 實現됨에 따라 모든 사

랍들은 勞動의 生産物이 完成되어 그것이 販賣될 때까지 그들의 生活을 支持하고 또 作業의 原料와 要具를 供給하는데 充分할 만큼의 蓄積을 필요로 한다[1, Vol. II, Introduction, p. 258]. 이 蓄積중 直接 消費하기 위하여 保留된 部分이 아닌 將來 收入 내지 利潤을 얻고자 기대하는 部分이 바로 資本이며 이것은 또 流動資本과 固定資本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1, Vol. II, Ch. I, p. 261].

資本의 再生産

스미드는 固定資本이 모두 流動資本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流動資本만이 收入을 낳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固定資本은 本源的으로 流動資本에서 派生한 것이다」고 말하고 「어떠한 固定資本도 流動資本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收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1, Vol. I, Bk. II, Ch. I, pp. 265—266]. 이러한 스미드의 見解가 根據없는 것임을 말할 것도 없다.

아 물론 스미드의 의하면 社會的 再生産은 다음과 같다. 社會의 固定 및 流動資本은 勞動으로 하여금 土地 鑛山 및 漁場에서 일하게 하며, 이것으로부터 衣料品과 原料가 生産된다. 이 原料중 一部는 더욱 加工되어 食料品이 되며 다음 部分은 完成品으로 된다. 이 完成品중 消費材로 되는 것도 있고 固定資本의 補給에 使用되는 것도 있다. 食料品중에서도 消費材로 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勞動을 위한 生活資料로 사용되는 것도 있다.

以上이 주로 素材의 觀點에서 再生産을 구상한 스미드의 見解이나 價値觀點에서 그가 구상한 見解는 어떠한 것일까[4, pp. 185—186]. 그가 投下勞動量에 의하여 決定되는 商品價値는 세 部分 즉 勞賃 利潤 및 地代로 分解된다는 것은 앞서도 論及하였지만 實際生産에 있어서는 위의 세 部分外에 原料 道具등의 第4部分도 필요하다. 이 第4部分도 결국 세 部分으로 分解되며, 따라서 全體의 價格으로 直接的이든 間接的이든 地代 勞賃 및 利潤의 세 部分으로 分解된다는 것이다[1, Vol. I, Bk. I, Ch. IV, p. 52]. 이처럼 商品價値가 세 部分으로 分解한다는 것은 一國의 全生産物에 대하여도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一國의 每年 生産되는 總生産物의 價値는 세 部分으로 分解되며 國民의 收入으로서 各階級間에 分配된다」[1, Vol. I, p. 54]. 그러나 이때 문제인 것은 스미드가 말한 것처럼 全生産物이 收入으로만 分解한다면 그 社會에서는 所得 내지 消費財 以外에는 生産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生産의 反復이 不可能해진다는 結論이 나온다.

이에 있어 스미드는 社會的 生産의 問題를 論함에 있어 總收入과 純收入을 區別하고 있다. 一國의 全住民의 總收入(gross revenue)은 土地 및 勞動의 年生産物의 總體이며, 그 純收入(net revenue)은 固定資本과 流動資本의 維持費를 公제한 다음에 殘存하는 部分, 즉

資本을 감식함이 없이 消費財에 追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1, Vol. I, Bk. II, Ch. II, p. 270]. 따라서 生産物 價値의 一部는 勞賃 利潤 및 地代로 分解되지 않고 資本으로 되며, 收入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스미드는 素材的 觀點에서 社會的 生産을 消費財 生産과 生産財 生産으로 나누는데 社會의 純收入은 消費財로서만 生産되며 社會의 資本으로서는 生産財로 生産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서 그는 擴大再生産 즉 資本蓄積을 論한다.

資本의 蓄積

스미드는 資本增殖의 直接原因은 節約이며 勤勞가 아니라고 한다. 勤勞가 節約에 의하여 蓄積되는 財貨를 供給한다고는 하여도 節約없이 資本이 결코 增殖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 Vol. I, p. 320]. 그리고 그가 節約된 것이 모두 勞動基金으로 되는 것처럼 理解한 것은 生産手段으로의 割當을 무시한 점에 있어 옳지 못하지만, 그가 말한 勞動基金이란 生産的 勞動者數를 增加하기 위한 基金을 의미한 것이다. 그는 生産的 勞動과 非生産的 勞動의 區別을 강조하였으며, 生産的 勞動의 標準을 利潤의 產出如何에 두고 있다[1, Vol. 1, pp. 320—321, 313—14, 322].

資本이 收入 내지 所得의 節約에 의한 生産的 勞動基金의 增加에 따라 增殖되는 만큼 스미드가 費用을 收入의 範圍內에 국한하지 않고 資本을 감식하는 浪費에 의하여 減少한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는 이러한 消費者가 필연적으로 生産的 勞動量을 減少시켜 結果적으로 一國의 富와 所得을 減少시킨다는 것이며, 따라서 失策은 社會의 敵이고 節約者는 社會의 恩人이라고 한다[1, Vol. I, p. 321]. 그는 또 無分別한 計劃과 失策은 浪費와 같은 結果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1, Vol. I, p. 323]. 이처럼 스미드는 「資本은 節約에 의하여 增加하며, 浪費 및 失策에 의하여 減少한다」고 설명하면서 前者를 권장하고 後者를 彈劾한 것이다[1, Vol. I, p. 320].

그의 그러한 主張은 黎明期 産業資本의 要求를 그대로 反映한 것이지만 그는 또 節約이 人間의 生活環境을 改善하려는 自然的 本能인 만큼 個人의 節約과 적절한 行動은 大體로 個人의 私的 浪費 내지 失策과 政府의 公共的 浪費를 보충하고도 남는 것이라고 樂觀한 것이다[1, Vol. I, pp. 323—325].

4. 經濟政策論

스미드의 經濟政策의 基調가 自由放任에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그는 經濟에 관한 한 各自는 그들의 利害를 가장 잘 알며 國家의 立法者와 行政官보다도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國家가 經濟上 干涉政策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事物의 自立的 發達을 阻害하며

不幸과 損失을 가져온다고 생각한 것이다[1, Vol. I, p. 421].

이러한 스미드의 自由放任論의 根據는 個人的 利益과 社會의 利益의 豫定的 調和를 信奉하는 樂觀的 自然神敎의 世界觀에 놓여있으며, 自然的 自由制度야말로 그의 理想世界였다. 그리고 그것이 部分的이기도 하였으나 이미 現實世界에 실현되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스미드는 中世的 干涉制度 및 그 延長인 重商主義的 諸政策의 弊害를 지적하고 그것을 根本에서 무너뜨려 自由制度를 실현코자 할 것이다. 위의 干涉制度중 國內的인 것으로서 徒弟制度特權組合 및 居住法등은 勞動 및 資本의 自由를 阻害하는 것이라고 하여 강력 배격한 것이다[1, Vol. I, pp. 136—37, 120—21]. 또 對外的인 것으로는 外國貿易政策의 基調인 重商主義가 無用有害한 것이라고 배격하였으며, 특히 特權會社로 하여금 外國貿易을 獨占케하는 政策을 맹렬히 비난한 것이다[1, Vol. I, p. 130].

스미드의 自由貿易主義는 國際的 分業에 의한 資本 및 勞動의 自由로운 流通을 根據로 하고 있다. 그는 對外貿易의 原則으로서 自由放任을 주장하였지만, 약간의 例外를 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즉 첫째는 國內産業의 障壁이며, 둘째는 國防上 또는 特殊産業의 必要性이다[1, Vol. I, p. 422—23, 427—35].

요컨대 스미드는 上述한 것처럼 「特權 및 束縛의 制度가 完全히 除去될 때 自然的 自由라고 하는 明白하고도 簡單한 制度가 수립된다. 이 制度下에서는 各自가 正義의 法을 침범하지 않는 한 그들이 희망하는데로 그들 自身の 利益을 추구할 수 있다」[1, Vol. I, p. 184]고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이 制度下에서는 政府의 消極的 任務인 國防 司法 및 公共施設의 세가지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自由放任論이 抽象的 絶對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具體的 相對的인 것임을 알 수 있다[4, p. 208].

III. 道德感情論과 國富論의 關係

스미드는 經濟現象을 설명하는 契機를 사람들의 利己心 즉 個人的 利益의 追求에 두었으며, 이러한 說明은 그의 道德哲學 특히 倫理學과 밀접한 關係를 가진 것이다.

그의 道德哲學의 體系는 4部로 나누어지며, 第1部가 自然神學, 第2部가 倫理學, 第3部가 法律理論, 第4部가 經濟政治論이다. 自然神學은 第2部 以下の 理論의 基礎이며, 第2部가 『道德感情論』으로서 刊行되었는데 이것이 또 第3部 및 第4部の 理論의 根據로 되어 있다. 第3部가 그의 法學講義의 內容을 이루었으며, 第4部가 後年 『國富論』으로 展開된 것이다.

스미드는 대체로 순수한 理論論 또는 自然神敎의 世界觀을 信奉하였는데 본시 理論論的

世界觀이란 自然法 내지 自然哲學과 같은 時代精神의 所産이었다. 自由解放을 요구하는 當時에 時代精神을 宗教的 領域에 있어서도 그 自然的 合理的 基礎를 求하고 一般的 妥當성을 갖는 宗教的 認識 특히 神性を 탐구한 만큼 傳統的인 既成宗教를 迷信 欺瞞 내지 不合理한 것으로서 배척한 것이다. 그의 世界觀에 의하면 太初에 全知全能한 神만이 存在하여 그 目的을 실현하고자 宇宙와 그 속에 포함된 一切의 事物을 自己의 設計에 따라 창조하고 그것에 因果的 必然성이 支配되는 法則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宇宙는 이러한 因果的 必然的인 法則秩序에 따라 運行되는 한개의 機械와도 같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機械가 아니고 神이 宇宙를 창조한 目的 즉 人類의 幸福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運行에 無關心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宇宙의 이러한 法則 秩序도 神의 目的인 幸福의 實現을 企圖하는 것이며, 人類가 그들의 性情에 따라 行動하는 것도 必然的으로 神의 豫定的 目的을 實現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스미드의 理神論은 철저한 樂觀論임을 알 수 있다[4, pp. 112—114].

스미드는 이러한 樂觀的인 理神論的 世界觀에서 人類天賦의 性情을 「自然的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科學的 努力도 오로지 이러한 自然的인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最高의 純粹性에서 發顯시킴으로써 神이 企圖하는 人類의 幸福을 實現시킴에 있었던 것이다[4, pp. 114—115].

스미드의 『道德感情論』에 의하면 全知全能인 神이 人類에 부여한 性情은 利他心과 利己心으로 大別되며, 前者는 주로 道德生活의, 後者는 주로 經濟生活의 動機로 삼은 것이다. 이 두 領域에서 이들 두 性情에 따르는 사람들의 行動은 自然的 秩序에 따라 스스로 個人과 全體의 幸福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道德感情論』에서 스미드는 德의 內容과 道德的 判斷의 基礎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德은 人間의 自然的 性情에 입각하는 것이며 利己心과 利他心의 적절한 調和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利己心만을 인정하려는 說을 배격하고 仁愛 正義 深慮 適正 등을 德이라고 한 것이다. 다음 道德的 判斷의 標準에 대하여는 이를 公平하고도 충분한 諒解가 있는 傍觀者의 同情에서 求하고 있다. 이때 傍觀者로서 同情하는 것은 他人의 行動을 適當하다고 是認하는 것이며 同情하지 않는 것은 不適當하다고 否認하는 것이다. 이러한 道德的 判斷은 他人의 行動에 대하여서만 아니고 自己行動에 대하여도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自己批判能力의 基礎야말로 良心이라 일컬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人間의 天賦의 것이 아니고 同情의 反射作用으로서 社會生活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社會的 性質을 갖는 것이다[3, Vol. II, p. 211, 300; Vol. I, p. 23, p. 276].

스미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人間의 自然的 性情을 利己心과 利他心으로 나누지만, 이

兩者가 적당히 調和를 이룰 때 同情感의 발동이 道德的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利己心이 利他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前者의 발동에 대하여는 엄격한 制限을 두어야만 同情에 의하여 是認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注意를 요하는 것은 이러한 利己心 發動의 범위가 비교적 광범하고 自然的이며, 그 行動의 對象이 健康, 外的 名譽 내지 財產에 관한 것에 속한다. 특히 經濟生活에서 利己心의 발동은 個人的 利益만이 아니고 全體의 福祉를 增進한다. 물론 個人的 利己의 活動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引導되어 社會의 利益과 人類의 增殖을 도운다는 것이다.

이처럼 利己心은 經濟生活의 本質的 要素 그 原動力이지만 그 發動이 一定한 限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正義의 法」이라고 한다. 그는 「自己 自身の 幸福에 대한 考慮는 深慮의 德으로서, 他人에 대한 考慮는 正義 및 仁愛의 德으로서 推獎한다」[3, Vol. II, p. 187].

이처럼 스미드는 經濟現象說明의 根本契機를 利己心에 구하고 이것을 그의 理神論과 關連시켜 人間天賦의 性情이라 하여 이것에서 社會의 自然的 秩序를 導出하며 또 經濟自由를 주장함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의 理神論 내지 倫理學說도 當時의 時代產物이며, 그것에 입각하는 利己心 내지 그 自由로운 發動도 그 當時의 產業資本의 要請에 副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經濟學이 抽象的 形而上學的 構造를 지니면서도 實際上 英國의 初期資本主義를 背景으로 하여 극히 具體的 實踐的 學問의 性格을 갖게 된 것이다[4, pp. 118—119].

IV. 『國富論』의 學說史的 意義와 그 影響

經濟現象이 人類의 存在와 더불어 시작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科學的 認識은 그와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事實上 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의 歷史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大體로 그것은 資本主義社會의 成立 發展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며 18世紀 中葉 以後의 일이다. 본시 經濟學의 萌芽는 古代 中世 내지 近世初期에 까지 소급되지만 이러한 時代의 經濟的 思惟 내지 思想은 대부분 哲學 政治學 法律學 神學등 他科學의 一部를 이루었으며 國家 그밖의 公共團體의 實際政策중에 혼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資本主義社會의 成立發展에 따라 經濟關係가 복잡해지고 특히 富의 획득 그 自體를 目的으로 하는 營利主義가 社會生活를 支配함에 이르러 經濟現象의 社會的 意義도 커졌으며 經濟學도 하나의 獨立된 研究部門으로서 科學으로서의 體系化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社會的 歷史的 情勢下에 스미드는 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을 體系化하는데 偉大한 貢獻을 한 것이다. 그는 특출한 綜合의

才能을 발휘하여 그 以前의 모든 學說을 통합함과 동시에 광범히 經濟現象을 관찰하여 經濟學으로 하여금 그 本來의 領域을 포괄하는 하나의 全體로 體系化하는데 成功한 것이다.

그 當時 프랑스에서도 이미 프랑수와 켜네(François Quesnay)가 末期封建의 重商主義의 政治經濟에 대한 反動으로서 資本主義的 農業을 中心으로 社會經濟의 各方面에 걸친 포괄적인 諸研究를 통합하여 經濟組織의 基本表인 「經濟表」(Tableau Economique)를 作成했던 것이다. 스미드도 켜네를 비롯한 重農學者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經濟學의 根本思想은 그들과의 交遊以前에 이미 形成되어 있었다. 특히 그의 自由主義的 思想은 重農學派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自然法學者들에서 그 源泉을 얻은 것이다. 그는 또 모든 產業의 生産性을 인정하고 全般的 不偏的으로 國民經濟를 觀察 記述하여 그 機構를 설명한 것이다. 스미드를 經濟學의 創建者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더욱 그의 名聲은 이러한 純科學的 貢獻만이 아니고 그의 主張이 當時의 政治經濟에 많은 영향을 미쳐 時代를 支配함에 이르러 더욱 높아진 것이다.

스미드의 經濟學說이 後進學徒들에 의하여 크게 환영받은 동시에 그 當時의 英國의 政策立法에 대하여도 큰 영향을 주어 自由主義的 改革論者의 典據로 되었다. 이리하여 스미드의 自由主義, 그 貿易自由의 運動은 드디어 1846年 穀物關稅法의 철폐 및 1860年 保護關稅法의 폐지에 의하여 實現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當時의 當面問題가 資本主義的 生産의 助成, 그 束縛의 除去에 躁急한 나머지 國富論의 研究範圍도 生産을 주로 하고 그것이 勞動生産力의 增進方法의 研究로서 統一되었으며, 특히 理論보다도 政策에 置重하여 分配에 대하여는 價格論의 부수로서 論述한데 불과하였다. 그의 學說은 後繼者인 맬더스(Thomas Robert Malthus)와 리카아도(David Ricardo)에 의하여 특히 分配理論이 보충됨으로써 古典經濟學의 完成을 보게 된 것이다. 그 後 이러한 先學의 諸學說과 그 後繼者로 自任한 머컬록(J. R. MacCulloch), 시니어(N.W. Senior)등의 諸學說까지도 踰越하여 集大成한 學者가 바로 밀(John Stuart Mill)이었다.

이처럼 스미드에 의하여 創設된 古典學派에서는 自由放任政策이 강력히 支持되었으나 資本主義의 發展을 沮止 破壞하는 새로운 事態가 나타남에 따라 正統學派를 非難 攻擊하는 세이(J.B. Say) 시스몽디(J.C.d. Simonde de Sismondi)등의 學者들이 나타났다.

아 물론 스미드는 맬더스 리카아도 밀 등의 祖述 展開에 의하여 古典學派의 始祖로 되었으며, 後年 資本主義社會의 進展과 더불어 歷史學派, 限界效用學派, 社會主義學派 등 諸派가 발생하였지만 스미드 및 그의 學派는 이들 諸派의 根源이고 出發點이었으며, 이들 諸派에 對立하여 古典的 地位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參考文獻

- [1]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ed. by E. Cannan.
- [2] ———, *Lectures on Justice, Police, Revenues and Arms*, 1763, Cannan edition, 1896.
- [3] ———,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74, Seventh edition.
- [4] 舞出長五郎, 『經濟學史概要』, 1937, 岩波書店.